

문화광장



양건 건축학박사·가우건축대표

단풍이 질 무렵이면 건축계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행사가 연속된다. 올해도 건축전시와 포럼 등의 기획과 참여로 힘든 일정 가운데, 전통 있는 건축 전문 저널에서 한 건축가의 비평을 의뢰받았다. 조심스럽고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지역건축가로서의 조명이 기획 의도라는 잡지사 측의 설명에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널에서 소개하는 건축가는 울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축가 정용식이다. 수년 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해 세상에 알려지더니, 최근에는 굵직한

어느 지역건축가와의 조우에서 얻은 단상

건축상에 자주 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가 됐다. 지역에서 성장한 건축가로서 쉽지 않은 성과와 건축을 선보여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그의 건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기도 했다. 며칠 후 그의 작품을 둘러보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다. 서로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는 사이지만 건축가와 비평가로서의 만남은 다소 생소했다. 건축가의 작품세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비평의 필터를 세워야 하고, 그 단서는 그가 자란 환경, 교육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수련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답사 일정 내내 그의 삶을 묻는 대화는 계속됐다. 울산 밖을 나서보지 않은 토종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목하는 건축가로서 성장한 의구심은 서서히 풀려갔다. 그는 어린 시절을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첩첩산중의 자연 속에서 지냈다. 가지산, 운문산 등으로 이뤄진 깊은 산세로 말미암아 그의 독특한 공간적 차원감이 형성됐고, 이는 벽을 겹겹이 세워 공간의 깊이와 감성을 줄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 울림은 건축에 누적돼 있는 시간성, 자연과 일체화된 풍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시간을 담고자 하는 그의 건축에 작동한다. 이렇듯 자연환경에서 얻어진 차원감, 지역 전통건축의 체험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의 동시대적 현상들이 어우러져 정용식 건축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비평은 그의 건축을 새로운 지역성 건축의 최전선에 포

지시하며 마무리됐다. 그 후, 경주 양동마을의 독립당과 향단의 도면을 다시 읽었다. 조선 초기의 유학자 회재 이언적과 모친을 위한 집이다. 그런데 자연과 세상을 향한 두 건축의 대안이 500년을 지나 지역의 건축가에게 그대로 전해져 있음을 발견했다. 이 순간 묘한 반전의 전율이 있다. 특별한 스승이나 어떠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었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이 감동했던 건축을 매개로 조선 성리학의 사유가 그의 건축에 계승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비형식적 건축가라 자칭했던 어느 지역건축가와의 만남에서, 오히려 '비참조 건축'의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제주 건축가들에게 이언적의 건축과 같은 레퍼런스는 무엇일까?' 하는 상념에 젖는다.

사설

정부가 지방대병원장 공모까지 간섭하나

제주대학교병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질 전망이다. 전임 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후임 병원장 공모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후임 병원장을 정상적으로 선출하려면 전임 병원장 임기중에 공모를 거쳐 최종 후보를 교육부에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주대병원 차기 병원장 공모 절차를 무기한 보류하면서 병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송병철 병원장의 임기가 지난 10월 11일 종료됐지만 후임 병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2개월째 직무대행체로 들어갔다. 병원장 공석 사태는 교육부의 이해 못할 요구로 빚어졌다. 제주대병원은 송 병철 병원장의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둔 올해 7월, 후임 병원장 공개모집을 준비하던 중 교육부로부터 공모 절차를 보류하라는 요

구를 받았다. 정부의 요구로 차기 병원장 공모 절차가 중단된 것은 제주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제주대병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인 제주대병원장 공모도 못하게 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추천한 병원장 후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임명을 보류할 수는 있다. 문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기 병원장 공모 절차 자체를 보류하라고 요구해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주대병원은 병원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감염병 확산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병원장 공모 절차를 중단한 이유를 해명하고 병원장 공석 사태가 더 이상 끌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린마당

겨울철 난방기기 잘 알고 따뜻하게 쓰자



이건민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가을이 지나가고 기온이 푹 떨어져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다. 겨울의 문턱에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보온을 위한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4만3249건)에 비해 2021년 총 화재건수(3만6267건)는 소폭 감소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2223명에서 213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겨울철에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생활

속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기기의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첫 번째, 전기장판은 구매할 때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는 안전 인증 KC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전기히터도 마찬가지로 KC 마크를 확인하고 이불이나 소파 같은 패브릭 소재를 포함해 가연성, 인화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콘센트나 멀티탭을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 멀티탭보다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 전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마지막 달만큼은 화재로 인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가족, 친구,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화목한 겨울을 나는 안전한 제주가 됐으면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 주요 현안 사전 논의·공유 후 결정

“구상부터 함께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정 주요 현안의 기조와 추진 방향을 사전 논의·공유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목.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타이머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며 “도정 주요 정책의 방향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구상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 그러면서 오 지사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진행해온 실국에서 작성하는 업무계획을 보고, 확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용역 진행을 비롯해 주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자료 없이 기조와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기조와 방향을 공유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태윤기자

청년 농부 현장지원단 운영

○...제주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 12일 제주시에서 따르면 현장지원단은 농업 전문가 2명, 독립경영체로 정착한 청년농업인 3명, 지자체 담당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청년창업농 55명의 영농 현장을 방문해 전업농 영농 유지, 경영 장부 기록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영농 기술과 경영 현황 등을 진단. 제주시는 “영농 초기 청년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소규모 교육과 보조 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이라고 강조. 진선희기자

급식실 안전, 도교육청 조기 완전 해법을

학교 급식실 안전대책이 현실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다. 급식 근무자들 안전사고가 전국 상위수준을 웃도는 상황인데도 교육당국의 종사자 건강검진, 시설 점검·교체 등 구축조치는 극히 제한적이어서다. 도교육청은 교육가족의 안전과 학생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최상 수준의 안전 도모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 급식실 안전문제는 몇 년간 수 십건의 사고 빈발로 줄곧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 최근 도의회의 교육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집중 거론돼 핵심 현안으로 재부상했다. 급식실 사고가 2018~2020년 3년간 55건 발생, 한 달에 1~2건씩 계속 일어났다. 산재사고 발생비율도 2020년 기준 2.09%로 전국 17개 시도중 두 번째였다. 손가락 절단사고는 2018년 이후 작년까지

여섯 번이나 나올 정도다. 도의회가 최근 교육청 예산안 심의서 급식실 안전대책을 집중 거론한 건 이와 무관치 않다. 의원들은 급식 종사자 전원 폐암 검진, 전 학교 환기시설 점검·교체, 인력부족 해결 등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이 환기시설 점검 용역과 일부 종사자 폐 CT 검사 등 제한적 진행에 불과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간 급식실 안전에 ‘땀질식 처방’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급식실 사고가 나서야 대응책에 부상을 떨었고, 근본적 안전대책엔 소홀히 해서다. 급식실 근무자들이 각종 재해 노출과 고강도 노동,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게 어제 오늘 일 아니다. 교육당국은 급식실 안전 시도중 두 번째였다. 손가락 절단사고는 2018년 이후 작년까지

불다 葬 告 告 告
사단법인 불다클럽 천지희 양수호
거사께서 2022년 12월 11일 19시 20분경
향년 51세로 별세하셨기에 아래와 같이
永訣式을 불다장으로 거행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2년 12월 13일(화요일)
▶ 영결식일시: 2022년 12월 14일(수요일)
오전 6시 30분
▶ 발인일시: 2022년 12월 14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 영결식장소: 위미 의례회관
▶ 발인장소: 위미 의례회관
▶ 장 지: 천왕사 연화원
배우자 박명현
딸 양윤지
양현지
사단법인 불다클럽
총회장 양창수 외 회원 일동 합장
* 연락처: (사)불다클럽 사무실 751-1080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
해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
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
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북비: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토묘란?
▶ 관내리 황성과 뿌리순상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굴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실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굴(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아까리 3년생
● 오히라베니와세(궁천변이지)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실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